

2023. 5. 15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. 5. 14.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

자치경찰총괄과장	홍 남 기	02-2133-9804
자치경찰정책팀장	정 명 이	02-2133-9805
담 당 자	강 민 준	02-2133-9810
관련 누리집	자치경찰위원회	http://gov.seoul.go.kr/apc
	반려견 순찰대	www.petrol.or.kr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서울 반려견 순찰대, 길 잃은 지적장애인 발견해 무사히 가족 품으로

- 5.7.(일) 순찰 중, 실종 지적장애인 발견해 신고...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
-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,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에 표창 수여
- “순찰한다는 마음가짐 덕분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도 다시 보게 돼 신고할 수 있었다”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위원장 김학배)는 5.7.(일) 새벽 1시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서 순찰 중 실종 신고된 지적장애인을 발견하고 신고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 ‘쿠로팀’에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.

○ 표창 수여식은 5. 18.(목) 15:00에 강동경찰서에 진행될 예정이다.

순찰팀(반려견주: 전형준, 반려견: 쿠로)은 연휴 야간시간대 순찰을 하던 중, 강동구청역 인근 노상에 쓰러져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단순 주취자로 보이지 않아 경찰(112)에 신고했다.

-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, 실종자는 발견 하루 전 실종 신고된 발달장애 남성으로 가족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어 거리를 배회하다 다리에 부상을 당해 길가에 쓰러져 앉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후 실종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후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되었다.
-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날까지 계속된 비와 강풍으로 추워진 날씨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 동네를 순찰하던 반려견 순찰대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.
- 신고자인 반려견 순찰대 전형준 씨는 “평소에는 술에 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해 갔을 텐데 순찰한다는 마음가짐 덕분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도 다시 살펴보게 된다. 실종 신고된 분을 찾게 되어 순찰대로서 뿌듯하다.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
-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적인 반려견의 산책 활동과 주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 치안 활동으로 산책하면서 우리동네의 범죄위험과 생활 위험 요소를 살피고 신고하는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.
 -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작년에 강동구를 시범운영으로 시작하여 9개 자치구 284팀이 활동했고,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작년보다 2.5배 이상 늘어난 719팀이 지난 4.30.(일) 발대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.
-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“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을 순찰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 실종자를 발견하고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.”라며, 이어서 “앞으로도 반려견 순찰대가 서울의 범죄와 위험을 예방하는 ‘거리의 지켜보는 눈’으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참고자료 : 1. 현장 및 서울 반려견 순찰대(쿠로팀) 사진 1부. 끝.



